



2026. 9. 17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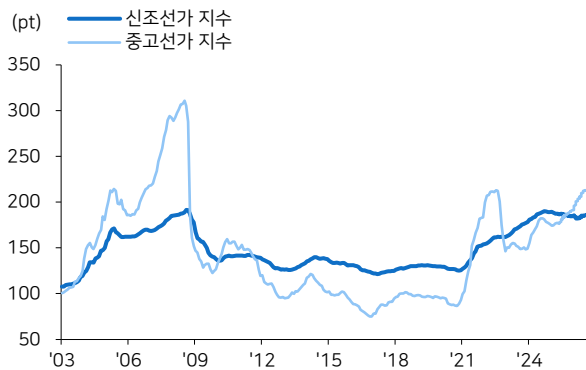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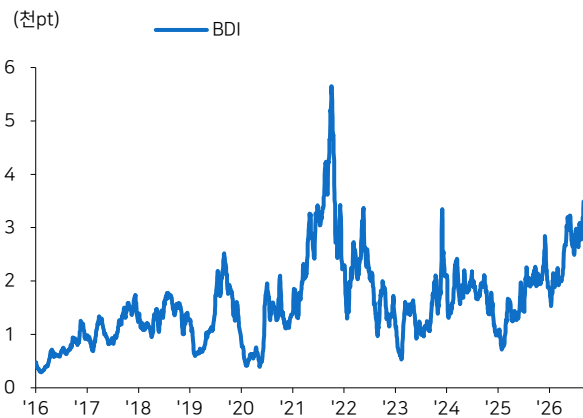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0.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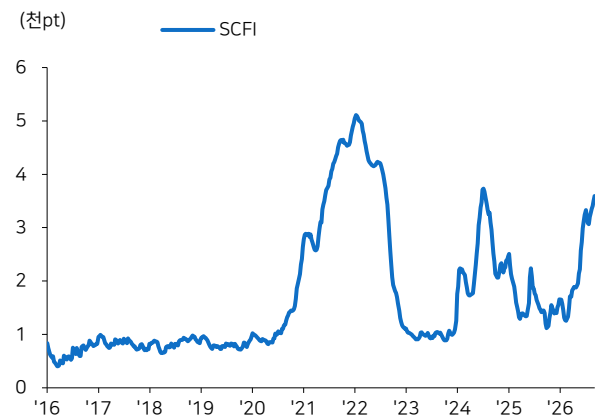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360.0p (-8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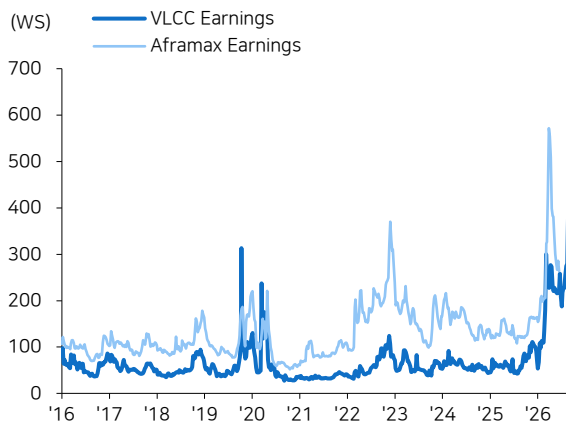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62.2 (+72.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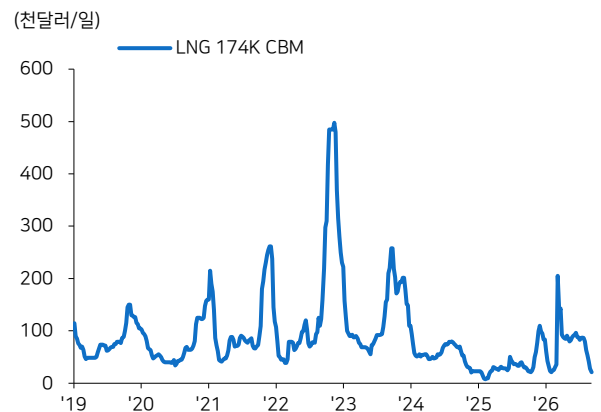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77.4WS (+235.5p WoW)



LNG Spot 운임

27.3천달러 (+6.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美 해군, 동맹국 군함 직접 조달 검토...K 전투함 수주 기회 (한국경제)

<https://zrr.kr/FjX0rl>

미 해군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직접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실제 건조한 함정 구매 가능성을 미 해군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보도됨. 미국은 자국 조선소 투자와 병행해 초기 함정 일부를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전투함 건조 참여 가능성이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전해짐. 다만 실제 발주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해외 건조 제한과 현지 생산 조건, 전투체계 통합 등 제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알려짐.

Asyad Shipping pens two more MR tanker newbuildings at HD Hyundai (TradeWinds)

<https://zrr.kr/qdVquk>

오만 국영 선사 Asyad Shipping이 HD현대중공업에 5만DWT급 MR 탱커 2척을 추가 발주하며, 2028~2029년 인도 예정인 동형 선박 발주량을 총 8척으로 확대했다고 보도됨. 추가 발주 선박은 척당 약 5,180만달러 규모로, 기존 6척과 마찬가지로 친환경·고연비 사양이 적용되며 제품운반선 시장의 장기 수요를 반영한 투자로 전해짐. Asyad는 8척 전량을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5년 장기 운송 계약으로 확보했으며, 이와 별도로 한화오션에는 VLCC 6척을 발주한 상태로 알려짐.

Hengli Heavy Industry moving to break into LNG carrier construction (TradeWinds)

<https://zrr.kr/QC9jFb>

중국 Hengli Heavy Industry가 자체 발주 방식으로 LNG 운반선 2척 건조를 추진하며 LNG선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 Hengli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을 먼저 건조한 뒤 선주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며, 중국 조선소들의 LNG선 시장 확대가 한국 조선사와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해짐. GTT는 2035년까지 LNG 운반선 신규 수요를 550척으로 상향 전망했으며, 중국 조선소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LNG선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KR, HD 현대중공업 50K LPG 운반선 개념승인 (머니투데이)

<https://zrr.kr/aw85UT>

KR이 HD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한 5만㎥급 LPG 운반선에 개념승인(AIP)을 부여하며, 기존 45,000㎥급과 6만㎥급 사이의 신규 중형 선형을 제시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Type A 독립탱크를 적용해 LPG를 저온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운송할 수 있으며, 적재 효율과 운항 경제성을 높여 다양한 중형 LPG 운송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개념·기본설계를, KR은 국제 기준에 따른 설계 적합성 검토를 담당했으며, 양사는 이번 개발을 통해 중형 LPG 운반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호주 납기에 발목 잡힌 일본...미국 호위함 수주전, 한국 충남급에 길 열리나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MAJtB3>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와 호주 수출 함정의 납기를 고려해 미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참여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미 해군은 일본 모가미급, 한국 충남급, 튀르키예 이스탄불급을 대상으로 기술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평가가 완료되면 초기 최대 2척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미국으로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11월까지 도출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일본의 생산 여력 제약으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미국 의회의 해외 건조 허용과 관련 입법 절차에 달려 있다고 알려짐.

"1 억弗 우루과이 초계함 사업"...HD 현대중공업, 정부내 '최고 선호' 유력 (더투데이)

<https://zrr.kr/CsxaL7>

우루과이 정부가 해군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약 1억달러 규모의 신형 원해초계함(OPV) 1척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의 HDP-2200이 정부 내부에서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프랑스 Naval Group·Kership, 콜롬비아 Cotecmar와 경쟁하는 3파전으로 진행되며, 우루과이는 가격보다 실전 운용 실적과 건조 경험, 납기 현실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해짐. 연내 정부 간(G2G) 계약 방식으로 사업 구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신형 OPV는 200해리 EEZ 감시와 헬기 운용 능력을 갖춘 검증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